

인공지능 시대 K-농업 방향 모색

국제농업박람회 이틀간 학술행사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일원서 기후위기·디지털농업 기술 공유

(재)전남도국제농업박람회 사무국이 17일부터 이틀간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일원에서 열리는 국제농업박람회에서 (사)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 등 주관으로 기후위기와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스마트농업과 농기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학술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행사는 전 세계적으로 지속 가능한 환경친화적 기술이 중요시되면서 농업, 농촌 디지털 전환의 기술 혁신 정보를 공유하는 장이다. 기후위기, 식량안보 위협, 탄소중립 실현 등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제 도출과 문제 해결 등 미래 농업의 가치를 파악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사)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에서는 17일 '스마트팜 기술 혁신과 기후변화 대응전략'을 주제로 스마트농업을 활용한 신기술 융합에 대해 이해하고 농업 분야 활용 가능성 및 상호작용에 대한 최신 정보와 사례를 공유했다.

기업인, 농업인, 관계 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스마트농업 산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한다. 농업 부문에서 챗지피티(GPT) 활용 사례와 기술 동향 발표, 국내 스마트농업의 수출 방안을 모색하는 등 열띤 토론의 장이 됐다.

18일에는 농축산기계신문에서 경북대학교와 공동 주관으로 '발농업 기계 발전을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갖는다.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재)한국미래농업연구원, 경북대가 참여해 ▲지능형 농작업기 개발현황 및 전망 ▲노지 스마트농업 적용사례 및 발전방향 ▲발농업기계 디지털 전환을 위한 통합관계 시스템 구축 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발표가 진행된

다. 자율주행 인공지능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농업으로의 전환에 대응하는 발농업기계의 발전 가능성과 애로사항 극복 방안, 농업의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논의 등이 활발히 펼쳐질 예정이다.

고령화와 농촌 인력 부족의 심화, 농업 생산에 불리한 자연환경 변화가 가속화되는 현실에서 케이(K)-첨단기술을 통해 대안 마련의 기회가 되고, 케이-농업의 세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명장환 국제농업박람회 이사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 환경변화에 맞춘 디지털 농업으로의 전환이 필수불가결한 과제"라며 "전남도가 스마트농업 기술혁신 학술행사 개최 등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 국제농업박람회는 '농업이 세상을 바꾼다-지구와 인간의 건강을 지켜주는 농업'을 주제로 오는 12일부터 22일까지 열린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장성서 전남자활대회 4년만에 개최

1600여명 참석 자활사업 성과 공유 우수 참여자·사업단·기업 표창도

전남도가 지난 13일 제20회 전남도 자활대회를 장성 흥길동체육관에서 개최했다. (사진) 전남도와 장성군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전남지부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이후 약 4년 만에 개최돼 자활사업 참여자와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등 약 16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에는 명장환 전남도 행정부지사, 이계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한중 장성군수, 최선국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장, 박철수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전남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자활대회 1부 기념식에서는 자활사업에 기여한 공로로 민간인 12명과 공무원 3명이 도지사 표창을 수상, 46명이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전남지부장 표창을 수상했다. 2부 행사에는 22개 시군에서 모인 자활인들이 황룡강 가을꽃축제를 즐기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장 외부에는 22개 시군 지역자활센터 홍보 부스를 설치해 지역자활사업단과 자활기업에서 생산한 농산물·공공품과 수공예품 등 60여 종의 생산품을 전시, 그동안의 자활사업 성과를 공유했다.

전남도는 올해 558억원을 들여 자활사업과 희망기움 참여자 2205명에게 인건비, 창업비, 목돈마련 등을 지원하며 자활 대상자의 탈수급 제고에 힘써 현재 133명의 탈수급 성과를 이뤘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영광에 전남형 공공산후조리원 9호점

영광기독병원 선정...2026년 개원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선제 대응

전남도가 저출산 극복과 출산 후 쾌적한 양육서비스 환경 개선을 위해 전남형 공공산후조리원 9호점을 추가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지역 출생아는 7896명(전국 3.2%)이다. 이 중 출산 후 민간 병원을 포함한 도내 산후조리원 이용자는 4444명(56.3%)으로 조사됐다. 전남형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는 929명(20.8%)으로 2020년(904명)과 비교해 2.8%가 증가했다.

전남형 공공산후조리원은 1호점 해남종합병원을 시작으로 2호점 강진의료원, 3호점 완도대성병원, 4호점 나주 빛가람종합병원, 5호점 순천 현대여성아동병원 등이 있다. 6호점 광양 미래여성의원, 7호점 목포 한사랑병원, 8호점 여수 예울병원은 오는 2025년 개원 예정이다.

전남 공공산후조리원은 저렴한 이용료와 수준 높은 서비스, 깨끗한 시설로 도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015년 1호점 개원 이래 올해 7월 말 기준 4515명의 산모가 이용했으며, 만족도도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도는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률 증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1개소를 추가로 확대 설치한다. 산후조리서비스 질 향상과 보육환경 개선이 기대된다.

이에 전남도는 산후 조리시설이 없는 중·북부 지역을 대상으로 9호점 공모를 시행했으며, 교수, 의료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한 공정한 심사를 통해 영광기독병원을 선정했다.

9호점은 출산 산모의 쾌적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위해 신축 건물로 추진하며, 의료기관이 5분 이내 거리에 위치한 긴급상황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평가됐다. 기존에 설치·운영 중인 공공산후조리원 5개소와 앞으로 설치되는 4개소를 개원하면 접근성 개선으로 전남 모든 지역에서 1시간 이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이를 통해 수준 높은 서비스와 깨끗한 시설을 저렴한 이용료를 지불하고도 쾌적한 산후조리 서비스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오종우 전남도 인구청년정책관은 "저출산 극복과 200만 인구회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도민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개선을 위해 총총하고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 수산 가공식품 싱가포르서 인기몰이...135만 달러 수출 협약

유망기업 6개사 수출개척단 파견

전남도와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해양바이오 연구센터가 싱가포르에 수출개척단을 파견, 전복과 김 가공식품 등 총 135만 달러의 수출 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사진)

수출개척단은 도내 대표적인 양식 수산물인 김, 미역 등 해조류와 전복을 가공·생산하는 수산 가공식품 수출 유망기업 6개사로 구성됐다. 이들은 30명이 넘는 싱가포르 현지 바이어에게 가공품을 소개하고 시식 행사를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

이번 수출상담회로 해조류 가공식품을 주력으로 하는 ㈜홍일식품과 (유)대한물산이 각각 50만 달러, 전복 톳밥 등을 판매하는 ㈜어업회사법인 해담은이 20만 달러(USD)의 수출협약을 해 전남 수산가공식품의 싱가포르에 진출 교두보를 마련했다.

전남도는 2018년부터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 운영 사업을 통해 해양수산 분야 기업을 발굴해 창업 및 마케팅, 해외수출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형 프로그램을 지원,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수산 식품 수출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박상미 전남도 수산유통과과장은 "최근 케이(K)푸드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인기를 얻는 가운데, 이번 수출상담회로 싱가포르에도 안전하고 우

수한 전남 수산식품 수출을 확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전남 가공산업의 체계적 지원을 통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수출이 획기적으로 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내일 고흥서 제75주기 여순사건 합동 추념식

전남 곳곳 전시·공연 등 부대행사

여수·순천 10·19사건 제75주기 합동추념식을 오는 19일 오전 10시 고흥문화회관 광장에서 전남 도와 고흥군 주관으로 유족, 김영록 전남지사, 정부인사, 국회의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개최된다.

이번 추념식은 지난 2022년 특별법이 시행된 이래 두 번째 개최되는 정부주최 행사다.

'여순·10·19사건 진실과 화해로 가는 길, 우리가 함께 합니다'라는 주제로 잘못된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화해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뜻깊은 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추념식은 정각 10시에 울리는 사이렌 소리에 맞춰 1분간 묵념을 하고, 추모영상 상영, 추모 공연, 헌화·분향, 추념사, 유족 사연 낭독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어 진행되는 위령제에서는 여순사건 창작곡 검은폴 공연과 유족들과 참석자들의 헌화

분향이 자유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여순사건 추모 분위기가 고조 및 관심도 제고를 위해 합동추념식 전후로 다양한 부대행사도 예정되어 있다.

전남도 청사 및 동부청사에는 여순사건 관련 사진, 그림 등 미술작품을 전시할 계획이다. 도내 곳곳에서도 오페라공연, 창작극 공모전, 연극공연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여수·순천10·19사건 피해 신고는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 12월 31일까지 신고·접수가 가능하다. 지금까지 7천여 건이 접수돼 1545건이 실무위원회를 통과했으며, 345건이 중앙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됐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쿨!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쿨!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쿨!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2201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다고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10만원(임시승인일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특약가입시) 월5만원으로 만기시 80%환급 (매월등가형, 공시이율 2022년 1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362-8400~6 FAX. 062)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유동지점 062)512-1984~5	유덕지점 062)373-3235~6	운암벽산지점 062)529-5335~6
치평지점 062)381-8212~3	동림지점 062)513-8521~3	동운지점 062)528-2640~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쌍촌지점 062)381-6551~2	운암지점 062)527-3295~6	배틀지점 062)381-1971~2	양동센터지점 062)361-4472~4
외정지점 062)372-0421~3	운천지점 062)371-2772~3	상무동지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